

보성군, 울포항 국가어항으로 도약, 2026년 정부예산안 기본설계비 반영

울포항 10년만에 이루어낸 감동, 남해안 중심 해양관광지로 도약

보성군은 3일 울포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에 관한 기본설계비 9억 원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보성군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 건의 과정의 결실로, 울포항의 발전 잠재력을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해 준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방어항인 울포항은 최근 ▲방파제 조성, ▲회현수산물 유통장 확충, ▲해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거점항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또한, 어업활동 기반이 강화되면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향후 기본설계를 거쳐 국가어항 지정·고시되면, 공공개발사업이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1·2단계

를 포함한 전체 개발에는 약 71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울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신규 부지 조성(22,845㎡) 및 핵심 어업 인프라(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야적장, 창고 등) 확충, ▲관광·레저·휴게시설을 유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항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과 보성군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향후 인근 시군과 연계해 관광·수산·항만 기능을 아우르는 다기능 국가어항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이음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



면, 울포항은 해양 교통의 허브항·수산물 생산 거점항·해양관광 중심항으로 도약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가어항 예산 확보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보성 해양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함평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탄력'

국비 20.5억 원 국회 본회의 통과... 총사업비 424억 확보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대한민국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에 성공하며, 함평의 미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은 3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안전교육원 건축기획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비 20억 5천만 원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함평군은 총사업비 424억 원 확보해 본격적인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함평군이 지난해부터 이개호 국회의원, 전라남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쳐온 노력의 결실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엔 확보된 20억 5천만 원으로 건축기획, 교통·환경 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6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군관계회 변경 결정 및 건축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원은 교통안전 전문 교육, 실습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 연간 수만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핵심 공공시설이다. 해당 교육원은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원 개원 시 ▲교통안전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교통안전 연구·실험 기반 확충 ▲연수시설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교통안전교육원이 조속히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성장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이달부터 청계면 구로마을에 마을공동 빨래방을 운영한다. 군은 전라남도와 상생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실시한 마을공동 빨래방 공모사업에 지난 7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고향사랑기금 재원으로 도비 1,500만원, 고향사랑기금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투입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난 11월에

무안군, “우리동네에 따뜻한 빨래 바람이 불어요”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청계면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설치했다. 마을공동 빨래방은 지난달 시운전을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마을공동 빨래방 운

영으로 주민들 간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이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재원을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더 큰 무

안을 만들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무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은 5억원을 돌파했으며, 시계의 자체 노선 운영 지원을 통한 군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고향사랑 마을버스 운영 지원 등 4건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성군, 올해 '모범음식점' 6곳 신규 지정

장성군이 3일 장성읍에서 올해 신규 '모범음식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올해 △남해회센터(장성읍) △소소한집밥(장성읍) △온다(장성읍) △엘로우한우식육사당(진원면) △천구야(장성읍) △탐앤탐(산계면) 6곳을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기존 '모범음식점' 27곳도 재심사를 통과해, 장성지역에는 총 33개 업소가 등록됐다.

'모범음식점'은 현장 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에는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환경개선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장성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예방 캠페인 실시

담양군이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에이즈 예방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감염병 예방 의식을 높이고자 담양읍 시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감염 경로와 예방법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군은 홍보 주간 동안 익명 무료 검사, 감염 예방법 안내, 성매개 감염병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흥군, 2025년 정신건강 한마음 송년행사 성료

장흥군은 2일 군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2025년 정신건강 한마음 송년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등록 회원들의 재할 과정과 회복 성과를 돌아보고 회원과 가족, 실무자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년행사는 ▲2025년 성과 및 활동영상 시청 ▲회원 참여 공연 ▲외부 초청 공연 ▲가족 소통 레크리에이션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보건의 관계자는 “회원 한분 한분의 회복 과정이 지역사회 전체에 큰 희망이 된다”며 “내년에도 마음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모두가 일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